

# 보도자료

2021. 09. 08.



## 상해한국학교

SHANGHAI KOREAN SCHOOL

창의체험부 ☎ 6493-9530

자료문의: 창의체험부 ☎ 6493-9530 부장: 창의체험부장 조민영

### 제목 : 영화로 배우는 세계시민의식! SKS 세계시민영화제

-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에서는 2021학년도 교육부 지원 교수학습자료개발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회 활동으로 세계시민 토요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공정무역 특별 수업, 세계시민의 날 등 다양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 외에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요즘 짧은 동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이 다소 길고 중후한 주제를 가진 영화를 선생님의 배경 설명과 함께 관람하고 소감을 나누며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SKS 세계시민영화제(지도교사 남아원)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다. 총 4회로 구성된 영화제에서는 각각 세계사, 다양성, 환경, 인권에 관한 영화가 준비되었으며 현재 3회의 영화제가 실시되었다.
- 제1회 영화제에서는 세계사를 주제로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이 상영되었다. 영화 시작 전, 엄현미 역사교사의 20세기 초반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배경지식을 넓혔다. 특히, 본교 행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 인솔팀으로 활동하는 11학년 학생들이 영화제에 참여하여 답사 일정을 짜기 전 당시 상황에 대한 세계사적 관점에서 배경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7~8학년 참가 학생들도 다소 어려운 주제의 영화를 집중해서 관람하며 성숙한 관람 태도를 보였다.
- 지난 8월 25일(수)에 개최된 제2회 영화제에서는 이상아 교사가 선정한 다양성을 주제로 한 영화 원더(Wonder)가 상영되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외모를 가진 어린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외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대사가 학생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었다.
- 제3회 영화제는 9월 1일(수)에 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노임팩트맨(No Impact Man) 상영으로 이루어졌다. 영화를 선정한 남아원 교사는 1년 동안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소비와 삶을 프로젝트로 실시한 가족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화 시대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 영화제의 마지막인 제4회 영화제는 오는 9월 15일(수) 방과후에 열린다. 김중섭 교사가 선정한 인권을 주제로 한 버든:세상을 바꾸는 힘(Burden)이 상영될 예정이며 QR코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참석자 명단을 공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영화제 감상 후 석식을 먹고 소감을 공유하고 하교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할 예정이다.
-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SKS 세계시민영화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의 영화를 보며 오랜 시간 예의 있는 태도로 영화를 관람하는 습관을 키우고 세계사, 다양성, 환경, 인권에 대한 폭 넓은 사고를 키울 수 있었다. 앞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제1회 영화제 격려사



제2회 영화제 모습

# SKS 글로벌 세계시민 영화제 #1

## 태양의 제국

(1987, 스티븐 스피버그)

#세계사 #전쟁 #그때상해 #근현대사 #세계

**<영화 소개>**  
1941년 중국과 일본은 4년째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었으며, 중화 지역의 상층 부류와 여권 미술 및 도시를 일본군이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었다. 상하이(Shanghai)에는 수 천 명의 서양인들이 국제거주에 관한 외교 조약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19세기에 영국인 이주가 영예진 이래, 은행과 호텔과 사무실과 교회와 가족을 지어, 마치 영국의 리버풀(Liverpool)이나 시리(Surrey)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국의 날은 오고 있었으니...

**신청하는 곳**

- 신청날짜: 2021.07.07.(수) 08:00~23:00
- 대상: 7~11학년 중 신청자(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50명 제한)
- 영화제 날짜: 2021.07.14.(수) 15:30~19:30
- 참가비: 무료(식사 및 하교 차량 제공)
- \*대한민국입시정보발자취를 찾아서 인솔단 지원팀은 필수참여\*

2021.09.01(수) **SKS 글로벌 세계시민 영화제** Vol.3  
 방과후 15:30-19:00

## 노임팩트맨

# No Impact man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상천외 챌린지가 시작된다!

자료를 지키기 위한 한 가족의 무한 도전

**NO TV NO 일회용품 NO 자동차**  
 뉴욕 맨해튼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환경 프로젝트!

2012년 6월 17일,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감독 로라 가버트(2008)**  
 작가지자 환경운동가인 '콜린'은 1년간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애(無害)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TV를 버리고 소핑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년, 365일 동안 점차 하기 힘든 행동으로 발전되어 가속화된다.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만 사먹기, 전기 사용 안 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배출 제로 등 지구를 살리는 모든 것들을 간소화시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2살 된 딸은 점차 짐겨워하고 야심 차게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삼수 연벌, 의견 충돌! 과연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참가비 무료**    **선착순 50명**    **신청 QR**

식사 및 하교차량 제공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수강생 필참 50석 채워질 시 바로 마감

1회, 2회, 3회, 4회 포스터

# SKS 글로벌 세계시민 영화제 #2

2021 08.25.

수요일 방과후 15:30-19:30  
 참가비 무료(식사 및 하교 차량 제공)

**wonder**  
 2017.08.11

You can't blend in when you were born to stand out  
 원래 특별한 사람들은 쉽게 섞이지는 않아.

We all deserve a standing ovation at least once in our lives.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요.

WONDER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 2017)

누구보다 위트 있고 호기심 많은 매력 부자 '어기'(에이들 트레벨레오).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대신 앙금을 받을 수 있는 황금줄을 더 좋아한다. 10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 '이시벨'(줄리아 로버츠)과 아빠 '네이트'(오렌 윌슨)는 '어기'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왔지만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는 누나 '비아'도 '어기'의 첫발을 응원해준다. 그렇게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던 '어기'는 처음으로 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용감하게 첫발을 내딛지만 첫날부터 '남다른 외모'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큰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어기'는 27번의 성형(?)수술을 견뎌낸 긍정적인 성격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하는데...

*I want*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수강생 필참!  
 영화관람 신청하고 싶다면 여기(선착순 50명)

# SKS 글로벌 세계시민 영화제 4차

2021.09.15(수) 15:30-19:00 소문 자치반 석식 및 편안한 하교차량 제공

"꼭 봐야 할 영화" "꼭 봐야 할 영화" "완성적인 케스팅"  
 "시각적 절하다" "현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 "우아하다"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된다

제 54회 칸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  
 칸국제영화제 알랑 기적

**베스트**  
 세상을 바꾸는 일

2020.11.25

**감독 앤드류 헤글러 (2018)**    **#백인우월단체 #KKK #총격살해**

벅속까지 차별주의자인 '마이크 벵든'은 우연히 자신과 정반대인 '주디'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벵든'은 '주디'와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신념이 부러져 흔들리는 사건들을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겪는다. 이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직장도 잃게 된 '벵든'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목사 '케네디'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둘에게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태생부터 달랐던 두 사람의 기적 같은 만남!

**김종섭 선생님의 Pick!**    **당신의 원천 관수업술**  
**선착순 50명!**    **축축히 썬서썬 바로 그 영화**  
 세계시민교육 수강생 필참

2021. 09. 08.  
 상 해 한국 학교 장